

주민이 기획·수립...서구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동

시 공모 29곳 선정...3억여 원 확보
협치·교육공동체 등 6개 분야 추진
공동체지원센터 연계 매칭 컨설팅

광주시 서구가 주민이 주도하는 '내결에 생활정부'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섰다. 서구민이 직접 기획하고 수립한 29곳의 사업이 광주시의 지원을 통해 실현돼 교육·인권·복지 등 서구형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15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광주시가 공모한 2023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29곳의 사업이 선정돼 시비 3억 3,2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72%(1억3,900만원) 급증한 수준이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광주형 마을자치공동체 조성을 위해 광주시가 각 사업별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을 공동체를 선정하고 사업 중복성 심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선정된 마을공동체에는 광주시와 각 자치구,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함께 회계실무지원단 운영,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올해 서구는 분야별로 ▲협치마을 4곳 9,600만 원 ▲교육공동체 12곳 1억4,500만 원 ▲인권마을 4곳 4,800만 원 ▲복지공동체 2곳 800만 원

▲여성가족친화마을 2곳 1,600만 원 ▲도시농업 5곳 1,900만 원이 선정됐다.

교육공동체 분야에는 치평초, 계수초, 운천초, 전남중학교와 협업체 학생들과 자연생태학습과 문화예술체험 활동 등을 진행하는 '신나는 자연탐험대' 등이 선정됐다.

인권마을 분야에는 5·18기념공원을 활용해 5·18과 관련된 인문 해설교육과 주먹밥 나눔, 인권토크쇼 등을 진행하는 '상무1동 주민자치회'와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인권문화재, 인권캠프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상무2동 쌍쌍이촌 마을네트워크' 등이다.

또한 '농성1동 보장협의체'는 고독사 위기가구를 선정해 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복지일촌을 맺고, 반려식물 기르거나 마을카페 영화감상 등

을 함께 하며 복지공동체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울러 양성평등 및 환경보호를 주제로 찾아가는 연극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는 '화사한 마을극단', 방과후 돌봄교실과 경제 놀이터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꿈꾸는작은도서관' 등의 활동도 주목할 만 하다.

이 밖에도 양3동 주민자치회, 농성1동주민사랑협의회, 금호2동 주민자치회는 옥상텃밭이나 마을 공동경작 텃밭을 조성하고, 텃밭에서 나온 경작물을 마을 나눔활동에 사용하는 등 도시농업 사업을 추진한다.

서구는 이번 공모를 위해 부서간 협업회의와 2단계 컨설팅 등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

련했으며, 마을활동가들과 주민들이 지역 상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매칭 컨설팅을 진행했다.

서구는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탈락한 사업은 미비점을 개선해 향후 각종 공모사업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역비전이 현실로 자리 잡는 의미있는 결과다"며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현장중심형 마을공동체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힘껏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광주시 서구는 최근 '맛과 멋, 흥'을 주제로 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8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창업캠프를 진행했다. /서구 제공

식용재료로 만든 유아용 크레용 '대상'

창업경진대회 8개 우수작 선정

타당성 검증 등 창업캠프 병행

광주시 서구는 최근 '맛과 멋, 흥'을 주제로 한 창업캠프 및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창의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아이디어 8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구는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맛과 멋, 흥(재미) 아이디어를 주제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3개팀을 선발해 아이디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창업캠프를 진행했다.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 먹을 수 있는

식용재료로 만든 과일 채소 모양 유아용 크레용(김미강)이 대상을, 임산부를 위한 디카페인 카페(정일영)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물과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단백질 스무디샐 ▲광주맛투어 프리패스리뷰(광주 맛집 자유이용권) ▲노인의 그림을 담은 굿즈 판매 및 전시 ▲광주전남 농축산물을 활용한 한옥 형태의 수제버거 전문점 아이디어가, 특별상에는 ▲식단을 통제하다-삼시세끼 밀프랩 서비스 '밀러' ▲서구플(Place+Play+People)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서구는 수상자들에게 총 1,000만원의 상금 수여와 함께 서구스타트업센터 입주 공모 및 각

종 창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산점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창업캠프는 ▲김승환 인카운터 경영연구소장 ▲문동진 더브레드 블루 대표 ▲이혜림 쉼프렌트립 선임 ▲김인수 비어스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창업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강의하고, 참가자들의 창업아이디어 타당성 검증,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자료 멘토링 등으로 진행됐다.

김미강 서구청장은 "경진대회와 창업캠프를 함께 진행하는 새로운 시도가 창업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면서 행사의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주민 창작공간 '마을미디어센터' 개소

촬영·편집 장비·공간 대여

광주시 서구가 최근 주민들의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미디어센터를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작성능률 커뮤니티센터 2층에 문을 연 마을미디어센터는 1인미디어실, 편집실, 조정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주민 누구나 미디어를 배우고 표현·창작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오픈스튜디오는 다양한 콘텐츠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미디어월, 방송용, 아트월 등 3면의

벽면으로 구성돼 있다. 라이브커머스를 위한 전용 크로마키도 설치해 가상 배경 편집 및 촬영 촬영과 실시간 유튜브 송출이 가능하다.

또한 1인 미디어실은 영상촬영·편집·송출까지 가능하도록 캠코더, 디지털카메라부터 삼각대, 오디오믹서, 핀마이크 세트 등 다양한 촬영·편집장비가 갖춰져 있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이며, 센터는 지역주민 제작영상 시사회, 마을영화 상영, 미디어 교육 및 각종 콘텐츠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공유재산 관리 '광주 1위' ...보조·매각대금 혜택

광주시 서구는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자치구 평가에서 광주 1위로 선정돼 공유재산관리 보조금과 매각대금 귀속비율 30%의 혜택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각 자치구로 위임된 공유재산 관리, 수입 증대 등 3개 분야, 7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서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방지, 변상금 부과·징수, 매각 실적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

됐다. 이에 서구는 공유재산관리 보조금 1,180만원과 매각대금의 귀속 비율 30%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서구는 기존 세출예산으로 사용되던 처분, 대부와 같은 수익금을 장래 공유재산의 수급·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협력사업인 '공유재산 전문관리사업'을 운영하는 등 재산관리 분야에 효율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디자인진흥원, 비엔날레·역세축제 지원한다

광주시 서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영산강 서창들녘 역세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오는 9월 개막하

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10월에 개최 예정인 제8회 영산강 서창들녘 역세축제의 홍보 및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디자인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